

7월 6일, 제 9권, 제 11호

政策에 對한 Y. Dror 의 關心

김 형 국

(助 教)

行政의 軸心으로서의 政策

오늘날 政行學의 主要關心의 軸心은 行政의 行動의 表現인 政策이다. 흔히 傳統의 行政學은 法規와 先例에 집착하여 實際의 行政現象과 遊離된 것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그러나 行政學이 學問的 成長을 거듭하여 오는 동안 많은 先驅學者들은 節次爲主의 行政을 지양하여 行政의 核心을 政策이라는데 眼目을 돌려 그方面에 뛰어난 研究業積이 있었으며 今日에와서 發展行政論이 크게 脚光을 받기 始作하자 政策에의 關心은 더욱 高調되었다. 發展行政의 課題가 國家 目標의 達成에 있어서 行政의 役割 좀더 具體的으로 急激한 社會變動에 處하여 變化를 다스리는 行政의 能力增大에 있을진대 바람직한 國家目標의 追求에 있어 行政이 表出하는 政策에 對해 研究의 焦點을 둔다는 것은 再言을 不要하는 바이다.

政策에 對한 研究로는 于先 行政現象안에서 어떠한 過程으로 產出되는 것인가 라는 政策 決定의 問題가 政策執行의 研究와 같은 程度의, 또는 그以上の 關心을 끌어들였다. 이點은 一國의 最高統治者가 言及한 「統治한다는 것은 決定하는 것이다」라는 語句에 잘 含蓄되어 있다. (1)

政策決定의 適正模型

Yehezkel Dror 는 政策決定研究에 至大한 關心을 기우려 一連의 論文(2)을 最近 계속 發表

* Yehezkel Dror 은 Israel 의 Hebrew 大學 教授이다. 現在는 美國의 RAND Corporation 에서 研究 中이다.

- (1) Theodore Sorensen, *Decision-Making in White Hous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63. p. xi Forword by J.F. Kennedy.
- (2) Dror 의 政策研究에 對해 筆者가 參照한 冊은 아래와 같다. Benjamin Akzin and Yehezkel Dror, *Israel: High Pressure Planning*, Syracuse, Syracuse Univ. Press, 1966; Yehezkel Dror, *Policy-making Reexamined*, San Fransisco. Chandler Co., 1968; "Improvement of Decision-Making and Administrative Planning in the Israel Government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in Israel and Abroad* 1966, Jerusalem, Israel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67, pp. 121-131; "Policy Analysts: A New Professional Role in Government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XXVII, No. 3(Sep. 1967), pp. 197-203; "An Israeli Institute for Policy Analysis: A Proposal", *Civilization*, Vol. XVII, No. 4(1967) pp.

하고 있다. 그는 政策決定研究의 問題點은 政策決定에 대해 알려져 있는 知識과 實際로 政策이 形成되는 過程사이 「갭」이 더욱 넓어지고 있음에 着案하고 그래서 政治學, 行政學 등 사회과학의 主要 論題인 政策決定理論을 發展시켜 理論과 實際의 乖離를 좁혀 보고자 하는데 있다. 그래서 政策이란 體制(System)의 產物, 政策決定體制의 產物인 것이므로 政策決定體制의 模型과 그 運用을 어떻게 改善할 것인가, 그리고 政策決定體制의 運用에 있어 政策決定에 關한 知識의 役割을 增大시키는 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方途로 「政策學」(Policy Science)의 定立을 主唱하고 있다. 그가 가진 理論의 背景을 아래에서 살펴 보자.

우선 그가 指適하는 政策決定過程의 特徵은 아래와 같다.⁽³⁾

- ① 대단히 複雜하다. 卽 意思疏通과 그것의 饋還틀(Feed back Loop)로 相關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構成要因을 갖고 있다.
- ② 動態的인 過程이다. 政策決定은 動態的인 過程이기 때문에 時間에 따라 달라 지며 그것의 下位過程이나 局面(phases)이 時次元上 繼起, 變化하여서 相關하고 있다.
- ③ 多樣的 複合要因이 있다. 政策決定은 複雜性뿐 아니라 多樣성이 있다. 政策決定은 多枝한 下位構造(Substructure)를 안고 있어서 이들 下位構造를 確認하고 政策決定에 있어 下位構造의 含有度を 把握하는 일은 時次元과 空間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 ④ 下位構造(例컨데 政治體制)가 相異해 짐에 따라 그것의 政策에의 影響은 各其 獨特하다. 議員內閣制의 경우 特히 輿論이 敏感하게 政策에 미치고 있음이 좋은 例다.
- ⑤ 政策決定은 一種의 意思決定이다. 이事實로 해서 意思決定의 模型을 가지고 政策決定에 利用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의 政策決定은 많은 意思決定의 集合體이기 때문에 意思決定의 模型을 가지고 政策決定의 模型으로 使用하는데는 愼重한 考慮가 必要하다.
- ⑥ 政策은 大體的인 指針이다. 政策은 대부분 仔細한 細則이 아닌 一般的인 指針을 意味한다. 그래서 政策은 軍事的 用語에서 볼때 戰術보다는 戰略의 概念으로 理解되고 있다.
- ⑦ 政策決定은 顯在的인 行動을 結果로 낳는다.
- ⑧ 政策決定은 未來指向的 이다.
- ⑨ 主로 政府機關에서 取하고 있는 行爲이다.
- ⑩ 現存의 모든 政治制度가 追求하는 公式的 目標은 公益이다. 그래서 政策의 窮極的 目標은 公益이다.

435—441; "Some Normative Implications of A Systems View of Policy making",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December 1968 pp. 1-10; "Futures in Government",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August 1968, pp. 1-14; "Course for Systems-and Policy-Analysis Staff Officers", (mimeo), March 1968.

(3) *Ibid*, *Policymaking Reexamined*, pp. 7-8.

⑪ 公益指向의인 政策의 決定은 크게 政策決定者의 善良한 信念에 依해 存在된다.

⑫ 政策決定은 可能한 最善의 手段에 依해 戰戰할수 있다. 여기서 費用對 效用의 意味가 부각될 뿐아니라 計量的 技術이 導入될수 있는 素地가 마련된다.

이러한 諸特徵을 가지고 있는 政策決定에 對해 從來의 政策決定理論은 大體로 規範的이라 하고 批判하고 있다.⁽⁴⁾ 規範的이라는 意味는 最終的 目標設定에서 그러하다는 뜻이 아니라 바람직한 目標와 價値를 最大限 얻기爲한 過程이나 構造의 定立이라는 手段的인 意味에서 規範的이다. 그래서 6 가지 類型⁽⁵⁾으로 大別해 볼수 있는 規範的 政策決定理論은 一貫性있고 條理에 合當한 政策의 提案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理想的인 性格을 지니든가 아니면 너무나 現實的이기 때문에 政策決定의 正確한 實體를 把握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나치게 純粹한 合理性을 排除하고 한편으로 適正의 目標追求의인 內容을 가진 政策決定의 「適正模型」(Optimal Model)을 Dror 스스로 提示하고 있다. 政策決定過程의 諸段階로 ① 價値處理 ② 事實處理 ③ 問題處理 ④ 資源의 調查 處理 및 發展, ⑤ 政策決定體制의 定立, 評價 및 再定立 ⑥ 問題, 價値 및 資源의 割當 ⑦ 政策決定의 戰略確定 등의 7 가지 段階를 포함한 18 個의 政策의 局面을 論及하고 있다.⁽⁶⁾

政策分析

政府의 政策決定을 研究하고 그것을 改善하기 爲해서는 政策分析(policy Analyais)가 先決 課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示唆을 주는 바는, 「政策學」 研究에 있어서 큰 比重을 차지하는 「政策分析」(Policy Analyais)의 方法論이다. 「政策分析」의 接近方法은 「體制分析」(System Approach)에서 援用한 것이다.

體制接近方法(System Approach)이란 어떤 行態와 여러 異質的인 現象을 分析하는데 必要한 統合的이고 一般的인 理論틀로서 이러한 一般體制理論에서 출발하여 組織管理論의 融合하여 政策의 基盤을 찾으려 한다. 그 理由는 政策이란 政策決定體制의 產物이기 때문이다.⁽⁷⁾

그렇다면 먼저 「體制分析」의 接近方法이 어떠한 點에서 政策分析의 主要骨字가 되었는지 살펴보자. 美國聯邦行政의 主要 改革運動은 政策決定에 對한 經濟的 接近 方法이었다. 이 경우에 必要한 經濟理論은 微視經濟學, 厚生經濟學이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O.R. 費用對 效

(4) 所謂 傳統的인 政策決定理論의 諸特徵은 筆者의 “肥料價格引下에 따른 政策決決 過程分析行政論叢, 第6卷 1號, 1968, pp. 275-292. 參照.

(5) Pure-Rationality model, Economically Rational Model Sequential-Decision Model, Incremental Change Model, Satisfying Model, Extrarational Model 로 分類하고 있다. *op. cit.*, Policymaking Reexamined pp. 129-153.

(6) Optimal model의 諸段階에 對한 仔細한 것은 *Ibid*, pp. 163-164 參照.

(7) *op. cit.*, “Some Normative Implications of A system View of Policy-making”, pp. 1-2.

果,乃至費用對效用理論을 利用하였다. 1960年代初 國防省이 開發한 PPBS(Planning-Programming and Budgeting System)가 바로 代表的인 事例이었다. (8) 政策決定에다 經濟學의 理論을 導入한 PPBS 에는 體制分析의 弱點이 靈犀되었다. 政策決定理論의 見地에서 본 體制分析理論의 脆弱點은 計劃化에 對한 지나친 執着하여 갈등적이며 수렴할 수 없는 價値를 다룰수 없으며, 決定의 鮮명한 基準이 必要하고, 政治的 流動性과 政治的 現象이 지닌 意味를 無視하고, 創意性같은 合理性以上의 것을 決定要素로 다루지 않아 複雜하고 巨大한 體制를 다룰수 없을뿐 아니라 個人的 動機, 非合理的 行爲, 人間의 特性을 堪案할 수 있는 分析道具를 缺如하고 있다. 그래서 體制分析의 接近方法을 政治學, 行政學, 經濟理論을 統合한 「政策分析」의 接近方法으로 발전시켜 複雜하고 計劃化할수 없는 問題와 體制까지 다루고자 한다.

體制分析과 다른 政策分析의 主要 特徵으로 첫째, 意思決定과 政策決定의 政治的 側面에 많은 關心을 기울이든 한편 政治的 可能性, 支持獲得, 對立하는 目標間의 調整, 相異한 價値에 對한 認識의 문제에 關心을둔다. 둘째, 意思決定과 政策決定의 넓은 概念과 內容을 포함할 뿐아니라 計量的 分析과 費用對 效用의 評價에다 여러가지 代案에 對한 質的인 探索에다 眼目을둔다. 셋째, 刷新的 思考力의 提高에 적극인 努力을 기울리며 政策의 새로운 代案에 對한 創意性과 探索을 強調한다. 넷째 質的인 模型이나 質的인 性格을 가진 方法論에 對한 깊은 理解와 그것에 對한 信賴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政策을 決定을 함에 있어 政策의 將次의 向方에 對한 長期的인 豫測에 적극적인 關心을 기우린다. 여섯째, 政策分析의 接近方法은 比較的 柔軟性을 가지면서도 手段目的 關係의 複雜한 相關關係, 各個의 政策決定의 基準을 把握하는데 體系의이다. 體制分析과 政策分析의 諸特徵을 對比하면 表 1 과 같다. (9)

再言하면 政策分析의 目的은 보다 넓은 理論的 背景위에서 좀더 體系의인 理論裝置의 도움을 받아 一連의 광범한 代案들을 慎重히 考慮할수 있게끔 決定을 改善하는데 있다. 그리고 政策決定의 全體水準을 向上시키기 爲해서는 政府組織에 變革이 要請된다.

表 1 體制分析과 政策分析의 諸特徵對比

	體 制 分 析	政 策 分 析
基礎學問	經濟學, OR, 計量決定理論	體制分析에 必要한 기초 科目外에 政治學, 行政學, 心理學, 其他 社會科學이 必要
主要觀點	計量分析	計量分析및 새 代案의 刷新

(8) PPBS 에 對해서는 美國에서 發行된 著書와 論文이 多數있지만 우리말로 紹介된 것은, 黃仁政, “PPBS 와 品目豫算制의 比較”, 行政論叢, 第7卷 1號, 1969 參照.

(9) *op. cit.*, “Policy Analysts: A Professional Role in Government Service”.

專門家로서의 必要한 資質.	明皙하고 因習에 사로 잡히지 아니한 高度의 分析的 力量을 가진 者.	體制分析에 必要한 力量에 다 원속한 性品, 政治·行政의 知識, 創意的인 想像力 및 現實의인 理想主義를 體得하고 있는 者
決定의 基準 接近方法	資源分配에 있어서의 效率性 經濟分析, 計量的 模型定立	政治, 經濟, 社會的인 合理性 體制分析에 必要한 것에다가 質的인 模型과 分析, 그리고 想像力이 풍부하고 未來指向的인 思考能力 및 統合된 各種知識
適用部門	豫算局에서 實施하는 PPBS	여러 형태의 Social Guidance Cluster
政策決定에 援用될때의 主要產出	限定된 問題인 경우에는 分明히 좋은 決定을 얻을수 있다. 그러나 高度로 複雜한 政治的인 問題일 경우 逆效果를 招來할 염려가 있다.	高度로 複雜한 政治的인 問題에 有效할뿐 아니라 長期的으로 政策決定體制的 運營을 改善할수 있다.
전문가 양성에 必要한 知識	이分野에 對해서 大學의 教科課程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多少間의 變化가 必要	行政學, 政治學등을 統合한 各科併行的인 「政策學」을 發展, 定立하여야 한다.

即「政策分析」이 政府業務內의 重要한 專門的인 役割이 되어야 한다. 政策分析擔當 幕僚는 政策을 決定하는 最高位職가까히 두든지 아니면 最高管理者나 高位系線職의 公式的인 諮問役이 되어 相互 共生的이며 協調的으로 政策에 關與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政策分析擔當 幕僚는 總體的인 政策決定의 過程에 附加的인 構成分子로서 決定過程의 보다 向上된 分析에 기여할수 있으며, 創意的이고 未來指向的이며 體系的인 事物處理에 크다란 助力을 할 수 있게 된다. 政策分析家는 行政과 政治를 잇는 架橋로서 政策決定의 行態나 類型的인 改善에 기여할수 있도록 政府高位層內에 광범하게 자리잡아야 한다.

특히 政府業務의 하나로 政策分析擔當役의 役割이 增大되면 「最高位層의 한사람이 내리는 意思決定」(one-person-centered high-level decision making)을 改善하는데 有用하게 된다. 最高位層이 行하는 政策決定은 政策의 어느 決定보다도 重要한 문제임에도 不拘하고 그것에 對한 研究調査가 無視내지 排除되어왔다. 勿論 여기에는 高位層의 政策決定을 接近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政策決定者의 個人的 性格이나 趣向에 크게 左右되기 때문에 研究의 難點이 있다. 이 點에 對해서는 오늘날 韓國의 政治·行政의 움직임이 많은 示唆를 주고 있다.⁽¹⁰⁾

政策業務內에서 莫重한 位置를 占하게될 政策分析擔當役을 養成하려면 大學이나 研究機關에서 어떠한 教科課程이 必要한가? 앞서 表 1에서 잠시 說明한 바와 같이 行政學關係의

(10) 筆者의 前掲論文, pp. 288-290

教科要目に 甚대한 變革이 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政策研究를 爲한 獨自의인 學科나 大學院을 設置할 수도 있다. 現在 政策研究에 努力을 傾注하여 많은 實蹟을 얻고 있는 先驅의인 機關으로는 Berkeley 의 California 大學, Buffalo 에 있는 New York 洲立大學, 그리고 MIT 大學이 있다.⁽¹¹⁾ 또한 Dror 自身이 直接 1966 年末에 Israel 에서 「體制 및 政策分析 參謀課程」의 研究 責任者로 奉職하여서 政策研究를 爲한 一連의 實驗을 한바 있으며 1967 年 8 月에는 Israel 의 Levi Eshkol 首相에게 「政策分析研究所」(Israeli Institute for policy, Analysis)의 設置를 建議하였다.⁽¹²⁾ 그 建議書에 指摘된 教科要目の 大綱은 다음과 같다. 먼저 數學과 經濟學이 基礎科目으로 必要한데 數學에는 微積分, 線型代數, 確率 및 統計數學이 포함되며 經濟學에는 巨視經濟學, 微視經濟學, 厚生經濟學, 經濟政策論이 들어 있다. 高級課程에 가서는 數學가운데 線型計劃(Linear Planning), 非線型計劃(Non-Linear Planning), Simulation 理論, Game 理論까지 教授된다. 行政學分野로는 企劃統制論, OR, 最新管理豫算論(Advanced Manegerial Budgeting), 費用對 效用分析이 줄거리를 차지한다. 以上の 體制分析에 必要한 知識外에 心理學, 社會學, 經濟學, 政治學, 地理學, 統計學, 法學, 歷史學, 哲學, 심지어 自然科學의 知識까지 動員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政策의 事例를 研究分析한다. 關心對象이 되는 政策研究의 論題로는

- ① 人口政策—出產率, 人口의 年令別構成比, 都市化와의 關係, 地域別人口分布
- ② 國際關係—특히 Israel 의 경우 中東紛爭을 위요한 危機解消策과 強大國間의 國際關係政策에서 看過되어온 弱少國間의 力學關係를 取扱
- ③ 發展途上國의 工業化를 爲한 研究開發政策(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y).
- ④ 國民文化 양양정책(教育, 文學, 詩, 映畫, 演劇, 美術 포함)
- ⑤ 加速化되는 社會變動이나 誘導된 社會變動에 對處할수 있는 行政政策; 大部分의 發展途上國에서는 行政과 社會間의 乖離現象이 極甚한데 이는 急激한 社會變動에 미쳐 政策이 對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⑥ 社會會計制度(Social Accounting System) : 政策決定의 여러가지 難點은 GNP, NNP 등의 國民經濟會計制度和 같은 水準의 社會會計制度가 缺如되어 있기 때문이다.

政府와 未來

政策研究에 있어서 Dror 의 至大한 關心分野의 하나는 未來研究⁽¹³⁾와 政府政策과의 相關關

- (11) Dror 가 指摘한 몇몇의 先驅의 大學外에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도 政策中心으로 教科要目を 改革하고 있음은 注目할만하다. 李漢彬「開發年代의 機關形成;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의 最初 10年의 成長과 70年代를 向한 展望」, 行政論叢, 第7卷 1號, 1969. pp. 8-9 참조
- (12) Y. Dror, "Outlines of Proposal to the Prime Minister, Mr. Levi Eshkol: An Israeli Institute for Pocity Analysis" (mimeo), 1967. 이 建議書의 內容은 前掲 *Civisizations* (Vol. No. 4),에 紹介되어 있다.
- (13) 未來研究에 關한 著書는 Paul T. David, "The Study of the Future", *Public Administration*

係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政策의 重要特徵의 하나는 未來指向性이다. 政府의 大少 政策은 短期든 長期든 間에 一定 時次元을 두고 여러 영향력과 波及效果를 미친다.

오늘날 斯界의 關心을 모우고 있는 未來學研究의 發達로 未來指向의인 政府政策에 對한 論議가 活潑해 졌다. 이러한 論議의 根底에는

첫째, 보다 나은 未來를 豫測해야할 必要性的 增大

둘째, 보다 나은 未來를 推定할수 있는 可能性的 增大

셋째, 未來의 必要에 對處할 要求의 增大라는 點이다.

換言하면 政府活動이란 產出은 大部分 政府라는 體制의 特徵에 依해 決定된다. 그래서 政府의 產出(政策)에 있어서 甚大한 變化를 願한다면 政府體制의 性格을 바꾸어야 한다. 未來指向性을 지닌 바람직한 政策을 얻기 爲해서라면 政府體制內에서 變化가 있어야 한다. 變化가 있어야 할 分野로는 政府의 構造, 政府內의 人的 構成, 政府의 意思決定類型的의 3가지 側面이 있다.

첫째, 未來와 政府構造.

政府構造의 根本理念은 分業이다. 卽 目標, 下位目標, 利益, 下位利益, 機能, 下位機能에 따라 그것을 追求하는 組織體가 있다. 그러나 이 構造의 原理原則은 時次元을 排除하고 있다. 그래서 公安의 問題와 GNP의 增大, 農民과 大學活動, 通信과 保健을 總體的으로 把握하는 데는 그와같은 時次元을 排除한 組織體로는 不充分하다. 왜냐하면 政府組織體는 堂面한 必要에 時間과 에너지를 投入하고 있으며 現在의 問題가 지닌 강박에 對處할 수 있도록 文書化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組織體든지 未來를 推定할수 있을 만큼의 知識, 方法, 戰略, 指向은 現在의 그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政府機關의 하나로 「未來研究機關」(Institutes for the Future)을 設置하는 것이 理想的이겠지만 政府部處의 企劃機構안에다 未來問題專門家를 두어 政策決定에 說得力있는 影響을 發揮하도록 한다면 至大한 成果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둘째, 未來와 政府人事

오늘날 政府活動에 있어서 問題의 難點은 幾何級數의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다룰수 있는 사람은 Malthus의 法則대로 算術級餘數의으로 增加할 뿐이다. 그래서 政策分析 專門家를 많이 吸收하고 重要 幕僚職에 앉히므로써 이 問題의 解決실마리를 잡을수 있게 된다. 政府의 各級 公務員들에게도 이 方面의 素養을 쌓도록 訓練시켜야 될 뿐아니라 政治家들도 이 分野의 高級訓練을 받을 機會가 주어져야 한다. 政治家들이 未來에 對한 認識과 未來에 있어서의 現在의 政策의 重要性을 看破할뿐 아니라 急變하는 環境下에서 政治家의 힘과 行

Review, Vol. XXVIII, No. 2 (March/April 1968) pp. 187—193 參照. 未來學의 研究 動向에 對해서는 月刊中央(69年 10月), 「特輯—紀元 2000年의 世界」 및 世代(69年 1月)「卷末부록—西歷 2000年의 證언」, pp. 351—420 參照.

(14) *op. cit.*, "Future in Government".

政家の 知識을 提携하게 되면 이 社會는 보다 밝은 將來를 約束받게 된다.

세제, 政策決定類型.

政府內의 構造와 人事를 未來指向의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自體가 目的이 될수 없다. 改編된 構造와 人事는 政府의 意思決定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未來를 十分考慮하게끔 政府의 構造와 人事를 改編했을 때 政策決定의 例示의인 類型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可能性이 있다.

① PPBS를 長期的인 問題와 「잇슈」에 까지 擴大 適用하는 일

② 各 政府部處內의 組織單位에다 人口, 技術, 經濟, 國際關係등 未來에 일어나리라 豫想되는 代案의인 어러 事態에 對한 共通된 假定을 提示하고 그들로 하여금 現在의 改革代案들을 分析할때 그것과 함께 考慮하게끔 하는 것.

③ 各 政府部處로 하여금 現在의 活動이 豫想되는 將來에 가서 어떤 意味를 지닐것인가에 對한 代案의인 措置의 줄거리를 作成하도록 하는 일

④ 各級 幕僚의 建議書에는 未來의 向方의 意味를 철저히 다루어서 各種 參謀建議書, 白書의 內容으로 할것 등이 있다.

要는 未來로 向한 姿勢를 갖추기 爲해 全面的인 刷新과 行政改革이 있어야 하며 또한 「最小不可缺」(Critical Mass)한 變革이 있어야지 그렇지 못할때는 日常의 慣例墨守에 휘말려 오히려 逆效果(Boomerang Effect)를 招來할런지 모른다.

政策學에로의 發展

結論的으로, 政策에 對한 Dror의 關心과 研究의 歸結은 政策學의 定立과 그것의 學問的인 發展이다. 그가 論及하는 政策學의 特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5)

① 政策學의 重要課題는 政策決定이며 거기에는 政策決定에 必要한 知識이 포함된다. '

② 政策學은 行動指向의이다. 그래서 短期든 長期이든 政策決定의 改善이 그 主要目的이다.

③ 政策學은 各科併行的 學問이다.

④ 政策學의 方法論은 相異한 水準의 多樣한 問題에 까지 接近할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오늘날의 發達된 社會調查方法을 最大한 利用하여야 한다. 特히 지금까지의 大部分의 政策研究는 高位政治 行政家의 無定型한 經驗에 依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試行錯誤를 거듭하는 감이 있다. 이를 解決할수 있는 方便의 하나로 高位政治家가 휴가를 얻어 스스로 記述하든지 아니면 政策學者와 提携하여 基礎的인 研究資料를 確保하는 일이다.

⑤ 政策學은 政策決定體制의 實質價值와는 關係없이 政策決定을 改善하려는 道具的인 知

(15) *op. cit.*, *Policy making Reexamined*, pp. 241-245.

識을 主內容으로 한다.

⑥ 政策學은 政策決定體制를 全體로 다룰수 있는 高次元 位置를 堅持하여야 하며, 政策決定의 全體的인 質的 水準上에서 간단하고 微細한 變數가 變化하는 것까지 十分 考慮하여야 한다. 어떻게보면 政策決定體制研究에 利用될 수 있는限 政策學은 社會科學이 첨가된 管理 知識일수도 다른 政治學을 結合한 體制分析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⑦ 政策學은 刷新에 對해 積極적인 態度를 가져야 하며 政策決定體制에 甚大한 變革을 일으켜야 될 것이다.

⑧ 政策學을 研究하기 爲해서 大學의 學科나 혹은 研究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⑨ 政策學은 特히 將來의 政策決定者가 特히 關心을 기울려야 할 學問이다.